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9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2025년 전국 의료기관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누리집 공개(9.3) -
- 비급여 가격을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화면 개편·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9월 3일(수)에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했다.
-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24년과 '25년 공통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고, 48.7%(278개)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하였다.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3% 인상되었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되었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

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사힘프로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비급여 기관 간 가격편차 사례(의원급 사례) 】

- ☐ ① (도수치료) 서울 A의원 10만원(중간금액) vs 경남 B의원 25만5천원(최대금액)
- ☐ ② (폐렴구균 예방접종료) 울산 C의원 13만원(중간금액) vs 세종 D의원 18만원(최대금액)
- ☐ ③ (임플란트) 부산 E의원 120만원(중간금액) vs 서울 F의원 250만원(최대금액)
- ☐ ④ (약침술) 서울 G의원 1만원(중간금액) vs 서울 H의원 3만원(최대금액)
- ☐ ⑤ (사힘프로그사진촬영[편측]) 광주 I의원 10만원(중간금액) vs 서울 J의원 200만원(최대금액)

※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

- 특히, 올해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개편하였다.

-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329. 필수의료총괄과. 2025. 9. 3.

II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 부처 합동 바이오 의약기업 토론회 개최, 현장 목소리 청취 -
- '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목표'로 과감한 규제혁신과 산업성장 지원 -
-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기간 대폭 단축(406 → 295일), 건강보험 신속 등재(330 → 150일)로 시장 출시 가속화 추진 -

■ 정부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협회·단체 등 130여 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9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新성장동력), 사회(건강·생명 직결), 안보(팬데믹, 공급망리스크)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바이오 혁신 토론회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정 및 투자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바이오 의약 강국 대도약을 위한 의견을 듣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다양한 바이오 의약기업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 캐피탈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K-바이오 의약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열린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 앞서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23년 17,487억 달러)는 반도체의 3배 수준으로 지속 확대 중(~'28년, 연 4.7% ↑)이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23년 5,649억 달러)은 더욱 빠르게 성장(~'28년, 연 11.9%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연 매

출 1조 원 이상)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24년 58억 달러)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더한다.
- 첫째,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하여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인다.
- 둘째, 기술-인력-자본을 연계해 혁신 성장을 가속한다.
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인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 명 양성하고,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
- 셋째,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세제·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인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한다.

■ 〈바이오 의약기업 토론회〉

- 자유토론은 바이오 의약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KTV 국민방송)되었다.
-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며,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337. 보건산업진흥과. 2025. 9. 5.

III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 30세 미만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실시(인천계양구, 대구달서구, 강원철원군, 전남해남군) -
-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실효적인 방안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5일(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25.4월~12월)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 ❖ (사례) 수급자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분가한 20대 청년

- 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갔으나,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 직면

■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리 지급 개념도 】

현행 (동일 가구)		모의적용 (별도 가구)	
부  부  - 부산 거주 자  - 서울 거주		부  부  - 부산 거주 자  - 서울 거주	
보장단위	3인가구	2인가구, 1인가구 각각	
급여수준	1,608,113원 (부모 중 1인에게 지급)	1,258,451원(부모 중 1인에게 지급), 765,444원(자녀에게 지급)	

* 부, 모, 자 모두 소득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함

-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 (사례) 현재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별도가구 신청이 가능하나, 담당자마다 해당 조건의 인정 여부(엄격성 여부 등)가 다름

- 부모와의 갈등으로 분가한 후 암 수술로 일하기 어려워 노숙자쉼터 전전, 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경찰 신고 등을 요구) 수급자 미인정
-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수급자로 선정

-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357. 기초생활보장과. 2025. 9. 14.